

옛 역사·서성문·영산나루... 나주, 야외 미술관 변신

시 '영산강국제설치미술제' 개최
통합축제 연계 다음달까지
조각·설치 등 국내외 작가 15명
금성관 등 10곳 거점별 작품 전시



다음 달까지 진행되는 '2023나주축제' 영산강국제설치미술제에서 전시할 국내 작가들의 작품.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2023 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 통합축제와 연계해 첫선을 보이는 '영산강국제설치미술제'를 다음 달 30일까지 개최한다.

설치미술제는 '흐름, 열 개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조각·설치·영상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국내외 작가 15명이 참여한다.

옛 나주역사, 옛 화남산업, 나빌레라문화센터, 나주목사내아 급학현, 서성문, 나주향교, 금성관, 나주정미소, 영산포등대, 영산나루 등 10곳에서 거점별 설치 미술작품을 전시한다.

나주 금성관에 설치된 '온고지신' (작가 강용면)은 등근 밭고춧과 풍요롭게 넘치는 밭 덩이들을 형상화했다.

밭은 역사에서 궁핍한 민중들에게 늘 소중했다. 전시 장소인 금성관은 조선시대 전국 최대규모 객사로 나주목을 방문한 사신·관리들이 묵었던 장소

다. 금성관 마당에 놓인 밭고춧은 축제 기간 나주에 온 귀한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지로 표현했다.

또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현 영산나루)에 설치된 '축적된 꽃잎' (작가 남지형)은 떨어지는 꽃잎을 마치 춤추는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해 암울했던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앞으로 이곳이 활발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나주목사내아에 설치된 '이사 그리고 이사' (작가 엄아롱)는 이상적인 자연을 동경했던 옛 선비의 마

음과 현실 세계 환경 문제를 동시에 환기한다.

특히 옛 화남산업에 '책 읽어주는 소녀' (작가 이남)는 영상미디어 작품으로 초등학교 어린 소녀는 관객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야기에 따라 영상의 배경이 점점 바뀌며, 아름다운 이상향은 전쟁으로 파괴된 풍경이 되고 마지막에는 평화롭게 눈이 내리는 풍경과 이상향의 모습이 비친다.

일제강점기 당시 화남산업에서는 수많은 쇠고기 통조림을 제조해 일본군에 납품했다. 이러한 내력을 가진 폐공장에서 소녀의 꿈 이야기는 전쟁 속 평

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한다.

영산포 등대에 '브링 더 스페이스-영산강' (작가 조은필)은 영산강 갯길 따라 모여든 농수산물에 넘쳐나고 상권이 번성했던 시절을 작품의 푸른 깃털로 영화로운 과거를 풀고 다시 날개가 되어 가볍게 날아오를 희망으로 표현했다.

이 외에도 ▲나주정미소에 '운명' (작가 이상용) ▲나주나빌레라문화센터에 '만화방장' (작가 박일정) ▲옛 나주역 광장에 '3명의 신' (작가 김병호) ▲나주 금성관, 나주향교에 '만남', 'I Love You' (작가 김경민) 등이 설치 전시된다.

또 해외작가 출품작으로는 이레네안톤(독일), 응우옌코이(베트남), 나오키 토사(일본), 하이 두(베트남) 등 4인의 작품이 선보인다.

장현우 나주시 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은 "영산강국제설치미술제는 나주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점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관광거점을 선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관점의 설치미술제"라며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목포수목비엔날레를 잇고 나주통합축제를 연계한 문화향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강태공들이여, 강진에서 '가을'을 낚자



오는 27~28일 강진군 마량항 일원에서 전국 바다낚시대회와 해양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마량항에서 승선 준비를 하고 있는 낚시객들. <강진군 제공>

27~28일 전국 바다낚시대회·해양박람회...농산물 판매장 운영도

강진군이 오는 27~28일 이틀간 전국 바다낚시대회와 해양박람회를 잇따라 열어 해양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강진군은 이 기간 마량항 일원에서 혼다마린컵 마량항 감성돔 낚시대회(27일)와 '1회 강진군수배 마량항 갑오징어 낚시대회' (28일)을 잇따라 연다고 23일 밝혔다.

낚시대회가 열리는 이틀간 같은 장소에서는 해양박람회도 함께 연다.

해양박람회는 강진산단 입주기업인 SDN㈜, 혼다와 협력해 치른다.

이들 업체는 다양한 해양 장비를 전시하고 '혼다 엔진' 무상 수리, 엔진오일·기름 필터 무상 점검 등도 진행한다.

'전국 바다낚시대회'와 '해양박람회'는 강진군의 민선 8기 60대 사업 가운데 하나인 '바다낚시 어선 유치'를 위해 마련된다.

강진군은 전국 강태공에게 마량항의 매력을 알리고 1차 산업 위주의 어촌 경제를 3차 산업인 해양레저관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국 바다낚시대회는 이달 4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했다.

갑오징어 낚시에는 1000명, 감성돔 낚시에는 200명 넘는 참가자가 몰렸다.

갑오징어 낚시 우승자는 무게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감성돔은 두 마리를 합해 길이가 긴 순서로 정한다.

우승자는 상금 1000만원, 2위 500만원, 3위

300만원, 4위 200만원, 5위 150만원 등을 받는다.

최대집어상을 시상하고 수산물을 경품으로 내건 행운권 추첨 등도 진행한다.

행사 기간 바다낚시 대회 참가자들은 마량면 일원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하면 구매 금액의 10% 상당(최고 5만원)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강진 농수산물 판매 공간도 마련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국 바다낚시대회·해양박람회를 단순한 행사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와 생활할 수 있는 정책 사업으로 마련했다"며 "마량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담양 3대 명품숲'에서 가을 정취 만끽

문체부 '로컬 100' 선정



왼쪽부터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길.



<담양군 제공>

담양의 3대 명품숲이 대한민국 지역문화 매력 100선(選)에 선정됐다.

담양군은 자연문화자원으로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길 등 담양 3대 명품숲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대표성과 영향력을 갖춘 문화적 명소와 콘텐츠, 명인 등을 발굴·육성해 대내외로 확산시키기 위해 문체부가 추진하는 브랜딩 정책의 하나다.

지난 7월 전국 지자체로부터 1000여 곳을 추천받고,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국민이 사랑하는 지역문화 매력 추천과 심사를 거쳐 최종 100선이 확정됐다.

담양 3대 명품숲은 대나무 테마정원인 죽녹원과 1648년 흥수 방지 목적으로 조성된 관방제림, 2002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선정된 메타세쿼이아길로 이뤄졌다.

2003년에 개장한 죽녹원은 31만㎡ 규모의 대나무숲과 정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시가문화촌으로 구성된 연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

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관방제림은 느티나무, 푸조나무 등 1.4km 구간의 풍치림으로 군민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2000년 국토확장 공사로 베어질 위기에서 군민의 힘으로 지켜낸 메타세쿼이아길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최근 맨발 걷기 좋은 길로 다시 태어난 관방제림과 메타세쿼이아길을 방문해 가을의 정취를 한껏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흥군 '725개 빈 집' 해법 찾기

정비사업 연구 용역 보고회...2028년까지 리모델링 등

장흥군이 700곳 넘는 빈집의 활용 방안을 찾는 다.

장흥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빈집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보고회에는 김성 장흥군수와 관련 실과소장, 용역사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용역 수행기관은 빈집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설명했다.

지난해 빈집실태조사 결과 장흥에는 725동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빈집의 분포도와 밀집도, 활용 가능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정비 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정비 계획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 계획을 아우른다. 장흥군은 주변 경관을 해치고 환경·안전 문제를 일으키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빈집이 있던 자리에는 주민과 청년·귀어농인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빈집 소유자가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활용 동의가 필요하고, 그를 위한 기준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에 서울 MZ들 떴다

국향대전 맞이 2030 관광홍보단 트립메이트 초청 팸투어

서울 20·30 MZ세대들이 함평에 떴다.

함평군이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맞아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시 2030 관광홍보단 트립메이트'를 초청해 함평 관광 팸투어를 진행했다.

'서울시 2030 관광홍보단 트립메이트'는 지역 관광 콘텐츠를 새롭게 발굴하고 확산하는 2023년 서울시 지역 상생 관광콘텐츠 개발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모집된 20~30대 관광홍보단이다.

21~22일 이틀간 진행된 이번 팸투어에는 SNS 및 영상 제작에 능숙한 20·30 트립메이트 1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1일차에 ▲용천사 ▲함평자연생태

공원 ▲양서·과충류생태공원 ▲매동포스트 바람막대기 체험 ▲함평엑스포공원 드론라이트쇼를 관람했다.

이어 2일차에는 ▲주포한옥마을 ▲물머리해수욕장 ▲대한민국 국향대전 ▲함평천지전통시장 등을 방문했다.

이들은 이번 팸투어로 취재·제작한 콘텐츠를 개인 SNS 및 트립메이트 공식 SNS에 소개해 함평 관광을 홍보한다.

함평군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함평군 관광 홍보 콘텐츠 확산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군 "함께 일하고 돌보는 양성평등 실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양성평등 실천, 앞장서겠습니다."

장성군은 최근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성군이 주최하고 장성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여성단체 회원·군민 등 250여 명이 함께했다.

올해 기념식 주제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장성'이다. 군민과 양성평등의 진정한 의미를 나누고, 양성평등 실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집 아이들의 트러스트·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식순에 따라 유공자 표창·단체별 활동영상 시상·표어 제창·특별강연 등이 이어졌다.

장성군은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가족센터'에 공공육아 나눔터·공공형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고, 방과 후 '다함께 돌봄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마을 공동급식·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여성농업인 전동차 구입 지원 등 여성 배려 시책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윤치 그윽한 담양 대나무 숲 함께 걸어요

내일까지 '달빛 산책' 참가자 모집

담양군이 오는 27일 해가 진 뒤 대나무 숲을 걸을 '달빛 산책' 참가자 30명을 모집한다.

달빛 산책은 오는 27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진행된다.

이 행사는 한국대나무박물관이 지난 '22회 대나무축제'에서 선보인 뒤 세 번째 개최한다.

참가자들은 한국대나무박물관을 관람하고 대나

무 숲을 걷고 보름달을 함께 본다.

가을 밤 거리 공연도 즐길 수 있다. 한국대나무박물관은 오는 25일까지 비대면 신청(naver.me/x6A0f3hf)을 받는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나무 문화 홍보와 방문객 증가를 기대한다"며 "한국대나무박물관의 정기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